



## 본회 완주지회 사료공장 준공식 갖어

- 완주군 2억4천만원 보조, 생산비 절감 기대 -

본회 완주지회(지회장 정원영)가 지난 11월20일 내외 귀빈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슴전용발효사료공장 준공식을 갖았다.

완주군 경천면에 위치한 사슴전용 발효사료공장은 대지 8백평에 총 공사비 3억원이 투입됐다.

기계 설비와 공장 2동을 건설하는데 투입된 3억원 중 2억4천만원은 완주군에서 지원했으며 나머지 6천만원은 완주지회에서 부담했다. 완주지회는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해 사슴용 발효사료를 제조, 관내 회원농장끼리 나누어 쓸 예정이다.

완주군 최충일 군수는 “완주는 사슴을 사육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지역 양육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완주군이 녹용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

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완주지회는 발효사료를 통해 사료를 제작, 급여할 경우 기존 구입사료보다 절반 이상 사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지회 정원영 지회장은 “관내 사슴 농가를 위한 완주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발효사료 급여를 통해 생산된 녹용이 지역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녹용 생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완주지회는 이날 발효사료기계 시범 가동을 통해 발효사료 제조 과정을 시연, 생산된 제품을 행사 참석인들에게 선보였다. 생산된 제품을 접한 참석인들은 ‘발효사료가 사슴에게 기호성은 물론, 영양 및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한편 완주지회는 앞으로 녹용수매센터를 운영해 관내 녹용 수급 조절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본회 김수근 회장을 비롯해 김태식 국회부의장, 최충일 완주군수, 소병래 완주군의회 의장 등이 준공식 축하차 자리를 함께했으며 완주지회는 사슴고기 및 녹혈 등을 준비, 참석인들에게 대접했다. **한국양육**

